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최수철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7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자유 교양 경시 대회'라는 게 열렸다. 문교부에서 필독도서를 선정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읽어가면서 그 책 속의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치러서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였다.

독서 분위기의 진작이라는 취지로 만들 어진 그 연례행사는 돌아온 때마다 쓴 웃음을 짓게 한다. 학교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어찌나 심했는지, 담임선생에 의해 선발된 학생들은 운동회 맵스케임에도 빠지는 특혜 아닌 특혜를 받으며 밤 10시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책장에 밀 줄을 그으면서 여러 권의 책을 통째로 달달 달 외워야 했다.

내 경우에는 '김유신전', '이순신전' 같은 위인전과 '신유복전', '박씨부인전', '홍부전', '춘향전' 같은 고대소설, 그리고 일연의 '삼국유사'를 읽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외에 뜬금없이 단테의 '신곡'도 포함되어 있었다.

책과 사람 사이에도 궁합이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시험 방식에 있었는데, 독후감을 쓰는 게 아니라 수십 개의 단답형 문항들을 가지고 일종의 모의고사를 보아야 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흥부의 몇 번째 박에서는 어떤 물건들이 나왔는지, '신곡'의 '지옥편'에서 지옥의 몇 번째 계곡에서는 어떤 인물이 어떤 벌을 받고 있는지 '맞춰야' 하는 것이었다.

달리 말해 학생들은 본의 아니게 늦게 까지 책상 앞에 불들려 앉힌 채 그 방대한 내용을 원시적으로 암기하는 고역을 치러야 했는데, 정작 본인들로서도 왜 그런 것 들을 외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도통 알 수

없었다.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의 독서 기억은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하기야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국민교육현장'을 강제로 암기시키던 시절이니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와 유사한 상황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발견되고 있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자기들이 고른 책을 읽어 주고자 반드시 독후감을 쓰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책 속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여 정답을 읽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입에 담는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책

가서 끝까지 읽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 책과 독자는 궁합이 맞는 것이다. 나는 책과 사람 사이에 분명 궁합이라는 게 있다고 믿고 있다.

책을 반드시 진지하게 정독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한다. 받아들여야 하는 정보가 날마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사실, 정보를 얻는 방식 중에 책은 가장 비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와 시간을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필요로 한다. 빠르고 복잡한 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어찌 보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책을 안 읽어도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

그러나 독서의 비효율성이야말로 귀중한 것이다. 거의 무한정으로 널려 있는 수 많은 정보들 중에는 단순히 기억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쓰어야만 비로소 완전히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보들의 제공을 책이 담당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궁합이 잘 맞는 책을 찾는 것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신중하게 행해야 좋은 결실을 맺는 게 아니겠는가.

<소설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 칼럼



조백현

최근 들어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성형 수술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 성형사실을 끝까지 숨기려고 하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졌다. 이는 성형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본인의 성형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의 201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천 명당 16명이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인구대비 가장 많은 성형수술을 한 국가로 나타났다. 한국인에게 성형은 타고난 외모를 개선해 사회생

미용성형의 키워드, 동안과 불륨감

활에 필요한 경쟁력 확보와 자기만족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녀에 대한 투자로까지 인식되기도 한다.

높아진 관심만큼 한국의 미용성형 기술도 발달했다. 2011년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를 보면 한국의 의료수입은 1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많이 찾은 진료과목은 피부과와 성형외과였다. 내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의 미용성형을 주목하고 있으며, 동남아와 가까운 일본과 중국에서 미용 의료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일이 늘었다. 높아진 한국의 미용 의료의 명성만큼 한국이 미용의료의 흐름을 주도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미용성형 분야의 유행도 크게 달라져 90년대에는 생겨풀 수술로 대표되는 '수술'이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에는 이른바 '쁘띠성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쁘띠성형'은 '작은' 이란 뜻을 가진 프랑스어와 성형의 합성어로서 절개하지 않고 주사를 통해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비수술적 미용치료를 말한다. 미국성형수술협회의 2011년 성형수술 통계를 보면, 미국 내 비수술적 미용치료는 전년 대비 6% 상승했다.

특히 가장 많이 시술되는 비수술적 미용치료는 보툴리눔 톤신과 필러 시술로 나타났다.

비수술적 미용치료는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시술이 간단하며 회복시간이 짧아 바쁜 현대인들이 선호한다. 또한 그 결과가 자연스럽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 만족도가 높다. 개별환자에 따라 지속기간은 차이를 보이지만, 통상 1년 정도 효과가 지속된다. 최근에는 효과를 높이고 지속시간은 길게 유지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져 그 편의성이 더욱 높아졌다.

요즘 여성들은 '예쁘다'라는 말보다는 '여려보인다'라는 말을 더 듣고 싶어할 정도로 미용치료의 키워드는 동안(童頬)이다. 동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불륨감'

으로 통통한 이마와 볼 등은 동안에 있어 필수 조건으로 볼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가 함께 늙어보이기 마련인데 간단한 필러 시술을 통해 꺼진 부분을 채워 불륨을 살려줌으로써 어려 보일 수 있으며, 최근에는 불루마이징에 특화된 필러가 출시되기도 하였다.

누구나 자신이 아름답고 어려보이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한다. 미(美)에 대한 꾸준한 관심은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며, 또한 밭갈하는 미용의료 산업은 한국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절제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 무분별한 성형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계하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숙련된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인 지, 시술에 사용하는 제품의 종류가 무엇인지, 사용하는 제품이 관리 당국의 승인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무분별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지금의 모습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스러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백현성형외과의원 원장>

기고



김대성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월 17일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냥고 있다. 이유인즉,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최소 적정규모 기준을 초·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 그리고 최소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으로 규정한 입법안이 농산어촌 학교에 미치는 엄청난 파급력 때문이었다.

교과부가 입법에 고려한 시장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중학교는 중학구)에 대한 학교선택권 확대이다. 둘째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초·중·고등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 제시이다. 셋째는 통

농산어촌 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지렛대'

구역 확대에 따른 원거리 통학생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에 대한 각계 각층의 입장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대략 몇 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이러한 교과부의 입장은 지역교육 현실에 대한 타당한 이해와 해결책 모색보다는 정책적 의지를 앞세운 정부의 통치방식 이면을 엿보게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지방을 지배할 수 있다'는 권력에 대한 의지이다. 이는 최근 교육대학을 포함한 국립대에 적용 중인 교과부의 '대학선진화 방안'과도 맥락이 같다.

교과부의 입법에 고려한 정부간 관계를 넘어 곧바로 지역현실로 나타난다. 맨 먼저 읍·면·동 중 면 지역 학교들은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특히,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악순환을 거듭해온 농산어촌 지역교육을 더욱 사자로 내몰고 있다. 우선 전남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는 곧바로 지역의 학생 및 우수학생 감소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폐교·분교·통

합학교·복식학급이 속출하고, 이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마침내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불신은 마침내 도시로 유학을 간행하는 구실이 된다. 교육을 이유로 자식을 태우거나 떠나보내야 하는 지역민들의 심정을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이 이해할리 없다.

이제 농산어촌 교육의 해결책은 지역민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변화에서 찾어야 한다. 교육을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지렛대이고, 교육은 지역민들의 삶의 문제이다. 이런 시각에서 지역민들은 교과부의 정책변동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교과부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마감한 5월 30일 이후 정부와 국회 등 입법 절차가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지역민들은 앞으로 대선과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에 따라 지역 공동체의 교육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 핵심은 교과부의 '적정규모 학교론'을 극복하는 것이다. 동시에 지역현실에 부합한 다양한 학교 형태와 교육 모델을 찾는 자세, 여기에 농산어촌 교육 희망찾기의 실마리가 있다.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한편, '적정규모 학교'라는 교육정책 프레임을 동원해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을 의도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부의 입장은 지역교육 현실에 대한 타당한 이해와 해결책 모색보다는 정책적 의지를 앞세운 정부의 통치방식 이면을 엿보게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지방을 지배할 수 있다'는 권력에 대한 의지이다. 이는 최근 교육대학을 포함한 국립대에 적용 중인 교과부의 '대학선진화 방안'과도 맥락이 같다.

교과부의 입법에 고려한 정부간 관계를 넘어 곧바로 지역현실로 나타난다. 맨 먼저 읍·면·동 중 면 지역 학교들은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특히,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악순환을 거듭해온 농산어촌 지역교육을 더욱 사자로 내몰고 있다. 우선 전남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는 곧바로 지역의 학생 및 우수학생 감소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폐교·분교·통

합학교·복식학급이 속출하고, 이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마침내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불신은 마침내 도시로 유학을 간행하는 구실이 된다. 교육을 이유로 자식을 태우거나 떠나보내야 하는 지역민들의 심정을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이 이해할리 없다.

이제 농산어촌 교육의 해결책은 지역민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변화에서 찾어야 한다. 교과부의 입법에 고려한 정부간 관계를 넘어 곧바로 지역현실로 나타난다. 맨 먼저 읍·면·동 중 면 지역 학교들은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특히, 교과부는

막무가내 호객행위에 봉변...강력히 단속했으면

"누나! 미인이시네요, 나이트 안가요? 진짜 안가요?" "우리 열아홉 살이에요." "에이~ 거짓말하지마."

얼마 전 가족끼리 식사를 하려 시내 중심가에 왔다가 골목을 빠져나가면서 빼끼들로부터 들은 말이다. 물론 평소 때도 이곳에서 한두 번 듣고 겪는 일이 아니다. 유흥가가 밀집돼 있는 이 거리 바닥에는 나이트나 룸살롱의 이름이 적힌 명함이 수십 장 날려 있

고 빼끼들은 무전기까지 들고 설치면서 10m 간격으로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은 채 '나이트'를 외쳐 댄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무리가 지나갈 때면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거나 팔짱을 끼기도 한다. 그야말로 무법천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술 안 마신다고 뿌리치고 걸어도 뒤를 따라 오면서 한 번만 가 보자"고 떼를 쓰기도 한다. 이런 막무가내식 호객 행위는 시민들을

너무나 불쾌하게 하고 짜증나게 한다. 빼끼들이 행인의 길을 가로막으며 막무가내로 호객 행위와 스킨십까지 시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이 길바닥에 뿐만 아니라 전단지와 명함들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다.

스트레스 좀 풀려고 시민들이 찾는 곳을 호객꾼들이 유혹하기로 만들고 있으니 아무나 편히 들어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스트레스 풀고 싶어도 이런 빼끼를 때문에 짜증만 들어난다. 바닥에 뿐만 아니라 나이트클럽, 키스방, 마사지 전단을 보면 아이들과 오기도 민망스러울 지경이다. 이런 빼끼들 좀 단속했으면 좋겠다.

<오동은 광주시 동구 금동

시설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더 이상 연기 안된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당초 2010년 완공이었던 문화전당이 옛 도청 별관 보존 문제로 2012년, 2014년으로 재차 늦춰진 데 이어 또다시 2015년으로 연기설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 문화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전당 개관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목표연도인 2014년까지 성사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중심 도시추진단은 문화전당 개관일을 2015년 7월 1일로 수정한 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을 재고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문화전당 개관이 늦춰진 것은 소요 예산과 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한 때문이다.

문화전당은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최대 현안이다. 정부는 더 이상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차질을 빚어야 한다는 점으로 목표연도인 2014년까지 성사되기를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중심 도시추진단은 문화전당 개관일을 2015년 7월 1일로 수정한 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을 재고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래방·유흥업소 화재에 무방비라니

광주 지역 다중이용시설 중 13%가 화재 위험과 함께 피난시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점검 결과 드러났다. 최근 부산에서 9명의 인명을 야기한 노래방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다른 시설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대형 참사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주 시 소방본부가 지난달 10일부터 노래방·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2568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조사한 1133개소 중 모두 144개소에서 209건의 불법 행위 등이 적발됐다고 한다.

이들 업소는 시설 내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비상구를 폐쇄하고, 통로로 확보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해왔다. 특히 대부분의 업소들이 법적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염처리된 소파와 의자를 사용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로 인해 더 큰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광주시 서구 치평동 A 유호주

집의 경우 2층은 노래방, 3층은 유흥업소로 영업허가를 냈지만 2,3층 모두 유흥주점으로 영업하면서 단속에 대비해 3층 출입구와 비상구를 폐쇄했다고 한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B단지주점도 전체 1226㎡의 영업장 면적 중 흡이 2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흡을 불법으로 개조해 틈을 만들어 영업을 해왔다.

지난달 7일